

# 목양칼럼

## 마지막 달력

그제 아침, 11월 달력을 천천히 뜯어내었습니다.  
 그 장면을 못내 아쉬워하던 마지막 달력 한 장이  
 원망의 눈초리로 저를 응시하더군요.  
 처음에 받았을 땐 많은 친구와 함께 제법 으스스대던 달력이  
 하나 둘, 친구를 떠나보내다가 이제는 홀로 벽에 남게 되었습니다.  
 문득, 그 모습이 내 모습 같았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는 결국 혼자가 된다는....

마지막 달력이 내게 묻는 듯합니다.  
 “자네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아?” “남은 시간에 뭘 할 건데?”  
 정말, 내 인생의 마지막엔 무엇을 해야 하나? 그러다가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폐암 말기를 지내고 계신 목사님이 최근에 여러 지인들에게 보낸 글이 있었는데  
 목사님은 이 시간에 무엇을 가장 아쉽다고 하시는지 다시 보고 싶었습니다.

“...주님을 섬기면서 여러 일을 하다 보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지 못할 때가 많았다.  
 남이 보기에는 괜찮았을지라도 하나님과 단 둘이 갖는  
 깊은 대화의 시간들이 점점 줄어들었다....”  
 목사님의 글을 다시 보니 그동안 너무 분주하게 주님의 일을 하시다가  
 정작 주님과와는 친밀하게 지내시지 못하셨음을 크게 아쉬워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다 떠나도 12월 마지막 달력이  
 결코 외롭지 않은 것은 25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외로운 우리들을 향해 “내가 너와 영원히 친하게 지내고 싶다” 고  
 주님이 찾아오신 그 날이 마지막 달력에 빨간 글씨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젠 외로워하지 말고 남은 시간,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과  
 친밀하게 지내는데 보내자고 마지막 달력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퀸즈장로교회

The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of Queens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718)886-4040 中文 (347)965-0343 Fax (718)358-7789 <http://www.kapcq.org>

<b>원로목사</b> 장영춘	<b>담임목사</b> 김성국
<b>부목사</b> 김도현/OPEM (347)450-7736	김재형 (347)761-7663 오인수 (267)205-1295
<b>전도목사</b> 이진은 (646)220-8324	<b>다민족선교사</b> 송요한 (917)940-0596
<b>전도사</b> 고부영/1교구 (917)423-5298	계화자/2교구 (646)641-8944 이양미/3교구 (516)717-8720
함미희/4교구 (917)359-2857	황해옥/중국교포, 중국어부 (718)825-6969
천위지/중국어부 (347)965-0343	진기웅/OPEM대학부 (201)835-3166
소유영/행정 (917)318-7030	
<b>교육전도사</b> 이명옥/영어부 (646)327-6438	강지영/유아부 (718)801-2339
이소영/유치부 (347)610-5399	평정은/유년부 (646)423-3583
차평화/중등부 (703)819-8785	배인규/청년부 (917)736-3429
최진식/ (646)887-7419	손요한/총회4부 (646)789-1118
창다/중국어부 (929)204-6868	
<b>직원</b> 정진규/관리 (646)651-7255	홍현숙/서무 (201)759-0820
Shen de Guia/QPEM	
<b>찬양대</b> 1부 예배 / 임마누엘 찬양대	2부 예배 / 호산나 찬양대
3부 예배 / 시온 찬양대	
지휘 / 소유영	지휘 / 최진식
반주 / 최미희 이승은	반주 / 송소영
	반주 / 윤현주
	4부 예배 / 할렐루야 찬양대
	지휘 / 최경희
	반주 / 김정윤 임세현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퀸즈장로교회**

원로목사 **장영춘**  
 PASTOR EMERITUS, REV. YOUNGHOON CHANG

담임목사 **김성국**  
 SENIOR PASTOR, REV. SEOUNG KOOK KIM

주후 2017년 12월 3일  
 제 43-49호

## 주일예배

1부 / 오전 8:30 김재형 목사  
 2부 / 오전 10:30 오인수 목사  
 3부 / 오후 12:15 김성국 목사  
 4부 / 오후 2:00 오인수 목사

* 예배선언 CALL TO WORSHIP		사회자
* 참회와 경배 CONFESSION & ADORATION		다같이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다같이
* 찬송 HYMN	31	1,3부 / 다같이
* 경배와 찬양 PRAISE & WORSHIP		2,4부 / 다같이
헌신기도 PRAYER		1부 / 전성호 장로 2부 / 이무근 장로 3부 / 김수산 장로 4부 / 김원도 장로
성경봉독 SCRIPTURE	출애굽기 14:1-31	사회자
찬양 CHORUS	문들어 머리들라 만유의 하나님 피난처와 힘되신 주 나는 믿네	임마누엘 찬양대 호산나 찬양대 시온 찬양대 할렐루야 찬양대
말씀 SERMON	<b>앞으로 나아가라</b>	1,2,3부 김성국 목사 4부 손요한 전도사
헌금 및 찬송 OFFERING & HYMN	359	다같이
광고 ANNOUNCEMENT		사회자
* 찬송 HYMN	104 / 1절	다같이
* 축도 BENEDICTION	치유와 축복기도	김성국 목사
* 표는 일어섬		

## 주일 저녁 예배

선교회 월례회 및 총회

오후 3:30 (12/3/17)	사회: 전성호 장로
예배선언	사회자
찬송 320	다같이
기도	정길표 장로
성경봉독	사회자
요한계시록 2:18-29	

말씀 오인수 목사

### 내가 아노니

찬송 357	다같이
광고	사회자
축도	오인수 목사

## 수요 기도 예배

오후 8:00 (12/6/17)	사회: 소유영 전도사
예배선언	사회자
경배와 찬양	다같이
광고	사회자
성경봉독	사회자
요한복음 12:44-50	

말씀 소유영 전도사

### 내가 온 것은

찬송 105	다같이
결단기도	사회자
축도	김성국 목사

## QPEM English Service

12:00pm	Rev. Peter D. Kim
Praise	Congregation
Scripture	Presider
Nehemiah 8:1-12	
Prayer	Deacon Edmond Cho
Sermon	Peter D. Kim
"A Biblical Response in Worship"	

## 中文堂崇拜

早上 9:30/下午 4:00	司会:陈玉捷传道
赞美	会众
经文	司会
太(Mt.) 24:36-44	
证道	陈玉捷传道
你预备好了吗?	

## Богослужение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8:30am	Пастор В.Сон
Хвала	Все вместе
Слово из Библии	сестра Т. Лян
от Матфея(Mt.) 1:18-23	
Молитва	брат И. Пегай
Проповедь	пастор В. Сон
"Ему имя Иисус..."	

## 새가족 환영회

2과 예수 그리스도인의 지상 생애

## 제직회

12/6(수) 수요 기도 예배 후

## 성탄 연합 찬양축제 크리스마스의 기적

프라미스교회: 12/10(주) 오후 6:00

## 교회소식

12월 결실의 달 -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 환영

새로 오신 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하 친교실에 새가족을 위한 지정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새가족 환영회(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에 모두 초대합니다.

### 행사 및 모임

12/3(주) 선교회 월례회 및 총회	12/6(수) 지도원 성경 공부/제직회	12/8(금) 구역 예배
12/10(주) 성탄 연합 찬양축제 - 크리스마스의 기적 (프라미스교회)	12/12(화) 사랑의 바구니 제작	
12/13(수) 제자훈련 수료 예배	12/15(금) 양로원 방문	12/17(주) 크리스마스 칸타타

### 알림

- 선교회 정기 총회**가 오늘(12/3) 저녁 예배 후에 있습니다. 각 연령에 맞는 선교회에 참석하시어 새로운 회장단을 선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지 참조) 신임 회장단은 선거 결과를 1층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고, 12/9(토) 오전 7:00에 본당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 연말 당회 기도회** 2017년을 마감하고 2018년을 준비하는 연말 당회 기도회가 12/3(주)부터 12/5(화)까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직회** 2017년도 결산 및 2018년도 예산을 위한 제직회가 12/6(수) 수요 기도 예배 후에 있습니다.
- 청장년부 창립총회** 디모데, 에스더, 요한, 뱀뱀 등 30대 선교회를 "청장년부" 라는 이름의 연합 모임으로 새롭게 발족합니다. 그 창립총회를 12/10(주) 오후 2:00 영아부실에서 갖습니다. 31~40세 (87~78년생)의 결혼한 부부와 36~40세 (82~78년생)의 싱글들이 회원이 됩니다. 창립총회에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탄 연합 찬양축제**가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란 제목으로 12/10(주) 오후 6:00에 프라미스 교회에서 있습니다. 본 교회 저녁예배 대신 연합예배로 드리오니 모두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식사 제공. 찬양대원은 오후 3:30, 교인들은 오후 5:00 교회에서 벤이 출발합니다.
- 교회 홈페이지 개편 작업중입니다** 각 부서에서는 홈페이지에 소개될 사역 안내를 작성하여 전산부 강성근 집사(it@kapcq.org)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탄절 포인세티아** 화분을 기증받습니다. 현관 게시판에 사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화분 당 \$10
- 12/9(토) 토요일 총동원 새벽 기도회** 찬양 담당: 장로부부 (다음주: 권사)
- 가족기념 장학기금** 심상면 집사, 심석순 권사

### 새가족

박영주 (청년선교 4Y2)

### 교우소식

**식사제공** 박상용 집사(박승희집사 1F11)가 딸(박 금)의 첫 돌을 감사하여 점심식사를 제공합니다.  
**소 천** 손정호 교우(석영지 4GN)의 부친 손영준 교우께서 11/21(화) 한국에서 소천하시어 은혜 중에 장례를 마쳤습니다.  
**소 천** 신광호 집사(신상숙 집사 3BS6)께서 11/24(금) 소천하시어 은혜 중에 장례를 마쳤습니다.

### 금식기도자

주 / 정경재 김미자 김화자 양봉옥 오영순  
 월 / 계연란 김석영 정주영 채현주 김연희 윤지영 화 / 김석영 소유영 소철화 정민영 채현주 오영순  
 수 / 권양로 양정자 최미희 계연란 송정향 김연희 목 / 박양부 박금수 소철화 이송은 정민영 윤지영  
 금 / 박 훈 정해성 소유영 정주영 송정향 윤지영 토 / 김경구 김청자 김은경 이옥수 전광인

헌금하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예배 및 모임

주일예배	1부	오전 08:30	본당
	2부	오전 10:30	
	3부	오후 12:15	
	4부	오후 02:00	
	오후	오후 04:00	
	영어	오후 12:00	양순관
	중국어	오전 09:30 오후 04:00	
	러시아어	오전 08: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본당	
수요 기도 예배	수요일 오후 8:00		
새가족 환영 모임	화요일 오후 7:30	친교실	
전도폭발훈련	화요일 오후 7:30	고등부실	
제자, 영성 훈련	목요일 오후 8:00		

영어부	1부 주일 오전 10:30 2부 주일 오후 12:15	영어부실(지하)
유아부		유아부실(2층)
유치부		유치부실(2층)
유년부		유년부실(4층)
초등부		초등부실(3층)
중등부	주일 오전 10:30/ 오후 12:15	중등부실(4층)
	토요모임 오전 9:00	
고등부	주일 오전 10:30/ 오후 12:15	고등부실(3층)
	금요모임 오후 6:30	
청년 대학부	주일 오후 2:00	본당
	금요모임 오후 8:00	유아부실
청년 선교부	주일 오후 2:00	본당
	금요모임 오후 8:00	중등부실

## 출석

1부 예배	320	러시아어 예배	23	영어부	37	중등부	61
2부 예배	327	청년 선교부	90	유아부	32	고등부	62
3부 예배	319	주일 저녁 예배	186	유치부	33	청년 대학부	42
4부 예배	181	새벽 예배	885	중국어 교육부	22	교회 학교 예배	473
영어 예배	182	수요 기도 예배	176	유년부	101	주일 낮 장년 예배	1755
중국어 예배	313	새가족 환영회	15	초등부	83	주일 낮 총계	2228

## 12월 봉사위원

책임 장로: 이무근 장로

헌신기도	차상남 장로	임 정 장로	정길표 장로	송동윤 장로
책임권사	심석순 권사	정금숙 권사	서규일 권사	청년부
실내 안내	이정숙 오영자 홍지혁	임승룡 허영미 문인숙 이미셀	김희은 오성태 송현규 김선희 장지숙 정민영	김서희 김누리 권동은 박새롬 정형진 김선의 조한결 신예지 윤국현
헌금 위원	윤영신 심인보 조규옥 윤순자 김정란 차광혁 채송자 강석춘	이지수 허영미 문인숙 임승룡 조인범 김미권	심원희 오성태 고종빈 나인애 김희은 박석미 한원희	김누리 권동은 박새롬 정형진 신예지 조한결 윤국현 박재상 소승우
차량 안내	이영호	김지한	윤지현	박철홍

화요일 새가족 환영: 마리아, 바울 주일식사: 마리아(다음주: 브리스가)

## 파송, 협력 선교사

파송선교사: 알마티퀸즈장로교회 김관중 선교사 / 캄보디아 이일훈 선교사 박수영 선교사

협력선교사: 미주크리스천신문 / 한인세계선교협의회 / 단미미션인터네셔널 / 여운세(캄보디아국제신학교) / 김현(캄보디아국제신학교) / 국제장애인선교회(미국) / 강인중(케냐) / 홍황식(파키스탄) / 김성일(터키) / 박은순(탄자니아) / 박선숙(미국 장애인) / 최득신 (프랑스) / 김명희(미국 할렘) / 지승남(미국 캠퍼스) / 최동훈(케냐)



이번 주의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문답 18) 그러나 누가 참 하나님이며 동시에 참 인간이고 의로우신 그 증보자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분입니다.

월 - 사도신경 / 찬송가 195장 / 소요리 문답 / 사도행전 3장 1-10절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말하지 않아도 눈빛에 다 쓰여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앓은뱅이를 만났습니다. 자신들에게 구걸하는 앓은뱅이에게 “우리를 보라” 말하자 그는 제자들이 뭘 줄까 하면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들 사이에 아무 대화도 없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더 좋은 것을 주기 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6) 태어나면서 앓아있었기에 다 포기하고 구걸하는 생을 살아야 했던 그에게 돈이라는 한시적인 해결이 아닌 치유라는 진정한 회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가정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 지혜와 은혜를 구합니다.

합심 기도 / 주기도문

화 - 사도신경 / 찬송가 196장 / 소요리 문답 / 사도행전 3장 11-16절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앓은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나타나자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구경하러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그들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호소합니다.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는 우리의 “생명의 주” (15) 이신데,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살리시고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앓은뱅이에게도 생명을 주었다고 설파합니다. “그 이름을 믿으므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아...” (16)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욱 믿고,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을 더욱 굳게 가지길 기도합니다.

합심 기도 / 주기도문

수 - 사도신경 / 찬송가 197장 / 소요리 문답 / 사도행전 3장 17-26절

어떻게 하면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자신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실은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생명의 주” (15) 입을 깨달은 사람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19) 라고 외쳤습니다. 온 종일 갯벌에서 일하고 진흙을 온몸에 뒤덮은 사람이 깨끗해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나와서 목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이전의 삶에서 나와서 씻고 새로운 삶을 살면 됩니다. 즉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정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합심 기도 / 주기도문

목 - 사도신경 / 찬송가 182장 / 소요리 문답 / 사도행전 4장 1-12절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무슨 주문 외우듯이 아무 감정 없이 ‘예수’란 단어를 되뇌는데 능력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담긴 그 모든 사건과 기억이 우리 상상을 뛰어넘는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엄마’라고 지금 나지막하게 고백한다면, 그 한 단어가 주는 몽클함과 사랑이 얼마나 큼니까? 그러나 엄마에게 버림받았거나 아무런 추억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단어는 심히 아플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고 희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는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써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no other name)” (12)! 우리가 예수 이름을 묵송아 부를 때, 주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왜 안 하시겠습니까?

합심 기도 / 주기도문

금 - 사도신경 / 찬송가 183장 / 소요리 문답 / 사도행전 4장 13-22절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핍박하던 공회 사람들도 베드로와 요한의 사역에서 나타난 기적의 능력의 근원이 어디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17). 그러나 제자들에게 영향이 있었던 것은 눈에 보이는 사람의 핍박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19)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현실의 목소리 중 어느 것이 더 실제입니까? 그렇다고 병에 걸렸을 때 기도만 하고 병원은 가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병원을 가보셔서 잘 알지만, 병원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필요한 곳 아닙니까?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그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합심 기도 / 주기도문

토 - 사도신경 / 찬송가 184장 / 소요리 문답 / 사도행전 4장 23-31절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현대라는 기업을 일군 정주영 회장의 자서전 제목입니다. 성도에게 시련은 포기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이 아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입니다. 전도하는데 시련이 닥치자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며” (29). 제자들은 뒤로 물러서거나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구하며 맞서 이길 힘을 구했습니다. 우리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 능치 못한 일 없으시니 자녀 된 우리도 용기와 담대함, 끈기와 도전으로 전진하길 기도합니다.

합심 기도 / 주기도문